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2면
ESG 경영도입 · 양성평등 실현 최선

전주매일

2022년 8월 25일 목요일(음 7월 28일) 제30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기재부 국가재정 평가위원회 최종 통과

국비 5000억원 투입, 축구장 300여개 규모 부지 조성

KDI 분석 결과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조원 이상 전망

김관영 도지사 등이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 통과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에 또 하나의 대형 국가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군산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24일 기재부 국가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5,000억원의 국비 투자를 받게 됐다.

이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 온 군산항의 20여년 숙원이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이날 국가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항로준설에 숨통이 트여 군산항 운영사와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 7 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축구장 300개 정도 크기로 국비 5,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다.

내년에 용역을 착수,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30년간 안정적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기초조사 용역비 45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연간 300만㎥ 이상 퇴적이 발생한다. 이에 항로 유지를 위해 매년 100만㎥정도의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그동안은 1980년대에 조성한 금란도 투기장을 3차례 둑을 높여 사용했으나, 현재 포화상태로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제2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되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아픔이 있었다.

허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새만금 매립토가 뻘흙으로 변화해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기타 준설토를 투기하던 기존의 금란도 투기장 마저 사용상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탈락의 아픔을 겪었고, 지난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강하여 지난해 11월 극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직후, 직접 기재부를 찾아 옛 동료와 후배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호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례적으로 8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물론 요구액보다 628억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투기장이 건설됨에 따라 5,000억원의 건설비 투입에 대한 직접투자 효과와, 군산항 준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도내 기업과 항만 경쟁력 강화, 향후 투기장 매립지를 부족한 군산항의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8,469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총 5,917명으로 조사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이자 전북 경제의 심장이어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챙겨왔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큰 결실을 맺었다"며 "연이은 대형 국가사업 성과를 통해 우리 도민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전라북도의 기세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신 전북도민과 해수부, 기재부, 군산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 및 국회의원 등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는 군산내항,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 및 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하여 해양 문화·관광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서천과도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2024년 민자개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군산 미룡동 고분군 연말까지 발굴조사

군산대 음악관 남쪽 위치

국립 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가야문화연구소(소장 곽장근)가 24일부터 군산대학교 내 음악관 남쪽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대학교 음악관 남쪽 산 능선(군산시 신관동 290-2)을 따라 조성된 마한의 무덤 유적으로,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1기의 고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당시 발굴조사를 통해 하나의 봉토 내에 여러 기의 개별 무덤이 조성되고, 주변에 도랑을 둘러 묘역을 구획한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또한 개별 무덤의 내부에서 독특한 형태의 토기를 비롯해 소형 철기류 등이 출토되어 전북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기원후 2~3세기 경)에 조성된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평가되었고,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군산시를 대표하는 마한의 핵심유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24일 토지신에서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인 개토제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의해 실시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도민체전 내달 2일 남원서 '팡파르'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

14개 시군 선수 · 임원 등 1만여명 참가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다음달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제59회 전북도민체전이 9월 2~4일까지 사흘간 남원시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여 명이 참가한다.

개최 종목은 검도와 게이트볼, 농구, 당구, 배드민턴, 볼링, 씨름 등 37개 종목으로, 각 시·군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본 경기에 앞서 사전경기로는 민속경기와 소프트테니스, 수영 등이 오는 27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

한편 개회식은 2일 오후7시 남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식전행사와 인기가수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또한 폐회식은 4일 오후5시 남원춘향골체육관에서 종합시상과 함께 차기 개최지인 김제시로 대회기가 전달된다.

정강선 회장은 "도민체전은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회이기도 하지만 도민들의 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며 "승패를 넘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도민체전, 그리고 안전한 도민체전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본격 시동

'A Farm Show 박람회'서 고향사랑관 별도 마련

전북도, 답례품 지급 특산물 전시 · 설문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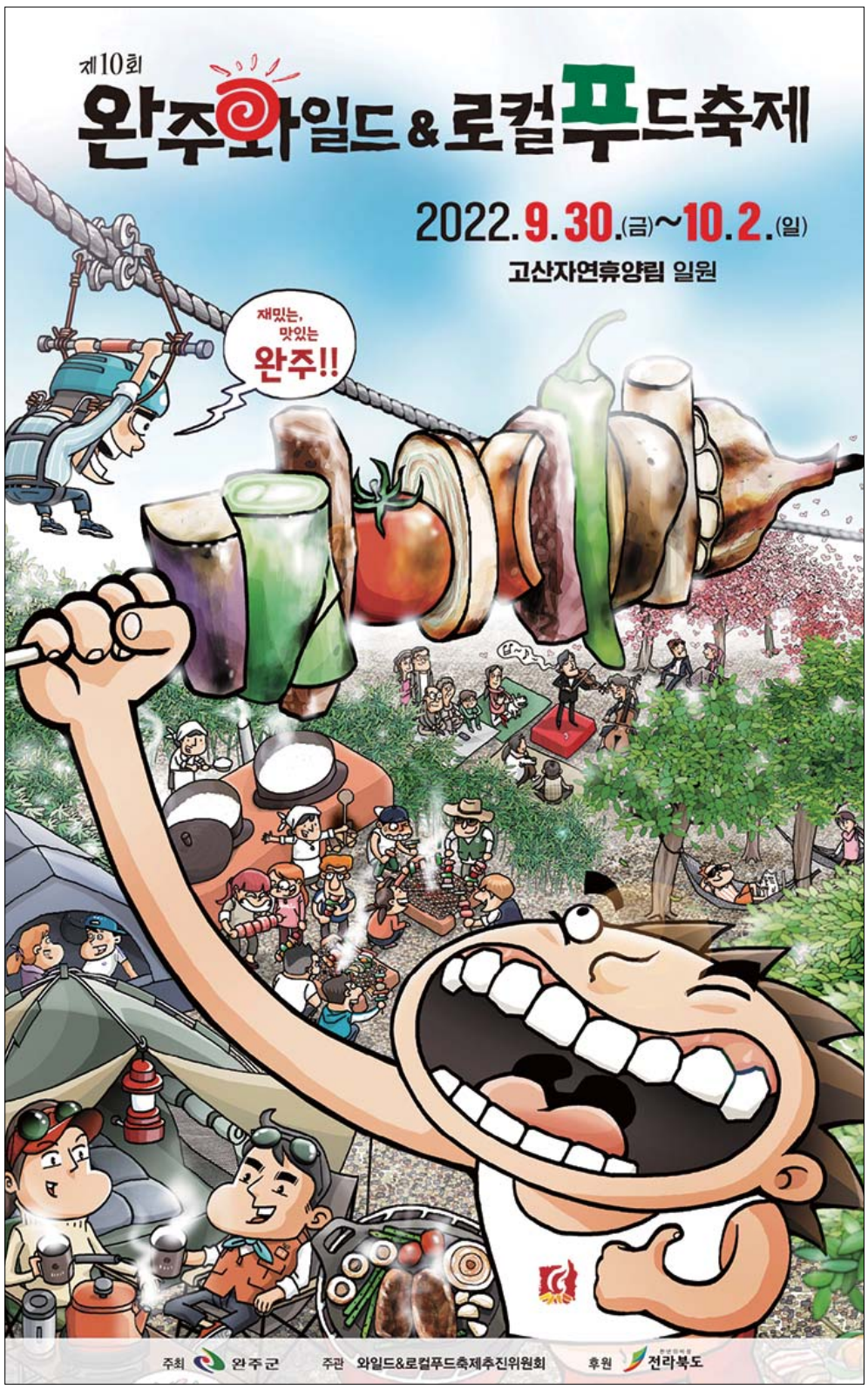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A Farm Show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전용 부스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다.

A Farm Show 박람회는 2014년부터 당초 창농·귀농의 주제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관을 별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전용부스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급될 대표 지역 특산품 15종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부 의사 및 기금사업 선호도 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북도의 재정 유입 효과를 분석하고, 추후 답례품 선정 및 홍보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향사랑홍보관에서는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 및 전북 관광 관련 홍보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북을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출향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전북도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김경수 기자